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로마서 1:5-6 에 대하여 공부를 하십시오.

로마서 1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⁵ By whom we have received grace and apostleship, for obedience to the faith among all nations, for his name:

로마서 1 :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⁶ 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 **Romans 1:5-6 (KJV)**

먼저 각 구절의 의미부터 차례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5 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이 신적기원을 갖는 것을 주장했는데, 5 절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복수인 ‘우리(=we)’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도 바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이것은, *hendiadys*(중어법)로 두 단어를 사용하여 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도직분을 받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은혜와 사도를 따로 떼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I.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로마서 1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 이 두 용어를 한데 묶어 한가지 의미를 나타내려고 한 것에 대해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도를 두 단어로 따로 따로 떼어 독립된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는 의미라는 것은, 다음 구절을 읽어 보면 그 것이 확실해 집니다.

로마서 15 : 15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서 15 : 16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 내게 주신 사도 직분을 인하여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 이 사도의 직분은

에베소서 3 :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직분을 주신 것은”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 에서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하는 말은 “사도 직분을 은혜로 받아” 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 직분을 왜 한데 묶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 내면적 실존 상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직분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사도 직분을 은혜로 받았다는” 감격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넘치는 이 감격을,

디모데전서 1 :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 1 : 13 내가 전에는 횡방자요 꺾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공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전서 1 :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 1 :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 : 17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NKJV)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포박해다가 옥에 가두고,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강요하고, 죽음에 던지우던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궤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었다.

디모데전서 1 : 13 내가 전에는 궤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는 외양적으로는 도저히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죄인 괴수 였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이다.

디모데전서 1 : 16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의 본보기요 모범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못받을 큰 죄인은 이 세상에 없다.

디모데전서 1 :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로 내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

디모데전서 1 :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님의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끌어 오르게 하니, 바로 이 마음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내가 사도가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이 감격과 감사를 그 어떤 것으로로도 갚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격과 벅찬 감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 : 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고린도전서 15 : 10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사도 직분을 받아 달려 가면서 어떻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보다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라는 사실보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오늘날 교계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뒤로 돌리고 직분만 앞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잇어선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민족이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원수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민족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핍박했는가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 : 23 ---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뻔 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 : 24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 맞았으며

고린도후서 11 : 25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고린도후서 11 : 26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후서 11 : 27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모두 쫓아 다니며 전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같은 민족이라지만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할 형편이 아닙니까 ?

이런 원수와 같은 동족인데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사랑과 애착이 있습니다.

로마서 9 : 1- 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 :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기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자기 민족을 복음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고 태장으로 때리고 죽도록 못살게 구는 동족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무한한 용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만 무한한 용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지은 자기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를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죄지은 남을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1 :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다 - 고 '과거 사실로 기록된데서' 저는 주님의 용서를
발견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훼방자이고 핍박자인 그런 인간이었으나, 현재에는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를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또한 용서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는데에서 남에
대한 아량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기를 아량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남을 아량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혜와 사도 직분을 받아 이렇게 고백한 문자 이면에 있는 사도 바울의 내면의 실존 상황 =
internal reality 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사도직분에 대한
그의 감격이 감정에만 치우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움직인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전인격적 신앙입니다. 이 전인격적 신앙에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영광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순교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순교의 시간이 다가올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감동의 권면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 :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 : 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디모데후서 4 :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 :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관제라는 말은 제단을 밝히기 위해 등잔에 붓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순교할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 :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구절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평생 해야 할 전인격적 부분입니다.

II. 믿어 순종케 하나니

다음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로마서 1 :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먼저 은혜가 와서 믿어져야 그 다음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것이 믿어져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을 죄의 종된 상태에 풀어주어야 의에 순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어 순종케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따라 옵니다.

믿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로 사도 직분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고 순종케 하려 함 때문입니다.

III. 다음에 6 절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1 : 6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Romans 1:6 (NKJV)

⁶ among whom you also are the called of Jesus Christ;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믿어 순종케 된 이방인들 중에 로마교회 회중인 여러 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는, the called of Jesus Christ 인데 Those whom Jesus Christ has called to be his followers 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말이 부름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kletos 라는 말인데, 1 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아’의 ‘부름’과 같은 말로서, internal & effectual 한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복음 선포에 청중으로 초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